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3년도
제3호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마리아의 인사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촌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예언자적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렸음을 알렸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2년부터 마틴 바르타 신부님은 훌륭한 내적 동기와 선교 정신으로 소식지 <사랑의 메아리>를 만드는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아리>는 우리를 고통받는 교회와 일치하게 하고, 교회라는 한 가족의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연결해줍니다. 교회 가족과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마틴 바르타 신부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신앙의 줄기에 열매를 맺고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베로니카처럼 하느님 교회의 고난 속에서 피로 얼룩진 구세주의 거룩한 얼굴을 닮는 걸 배웠습니다.

친애하는 마틴 신부님! 성모님의 모범적인 봉헌의 삶을 따라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간직하면서, 이를 통해 참된 자선의 길에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방식은 다를지언정 결국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신부님을 떠나보내는 한편, 새로운 ACN 지도신부로 부임하시는 안톤 레서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고난회 소속인 안톤 신부님은 독일어권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인정받는 사제로, 지금까지 특히 신학 및 학문 교육과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훌륭히 사제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전통적인 성모성월인 5월의 마지막 날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을 지내게 될

니다. 성령에 이끌려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찬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일손을 도우려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간직한 마리아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컸을 겁니다. 산악지역을 지나 길고 힘든 여행 끝에 즈카르야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가 사촌에게 인사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루카 1,41) 이 집은 예수와 마리아의 현존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인사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엘리사벳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통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마리아에게 풍성히 내렸음을 알립니다. ‘은총이 가득한’ 곳에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심오한 마리아 신비는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기념하는 성령이 위대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모든 독자과 후원자들을 대표해서 저는 마틴 신부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형제로서 그에게 진심으로 행복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안톤 신부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 또한 ACN 재단 내의 23개 국가 지부 국제 본부 내 모든 부서들을 ‘방문’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모 마리아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 재단장인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께서 제게 ACN 지도신부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무척 놀랐습니다.

독일 쾰히슈타인의 ACN 국제본부로 자리를 옮긴 지금, 이 글을 통해 제가 받은 첫인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째 ACN을 알고 지내면서도 지금까지 이 사목 원조기구의 규모와 범위, 전 세계적인 활동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과 체험 이후,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감사함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원조기구를 통해 특별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섭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시대의 고통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며 원조 사업을 시작한 창립 세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와 착한 행실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와 신뢰로 원조 사업에 동참하여 주시는 후원자들의 어마어마한 숫자 역시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각 국가 지부의 지부장들, 국제본부의 지도부와 직원들은 다양한 능력, 헌신, 성실함과 우정을 통해 인생의 새 장에 들어선 제게 기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곳 쾰히슈타인의 국제본부에 감도는 믿음과 기도의 분위기에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약 150개국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국제 사목 원조기구 ACN의 새 지도신부로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걱정과 근심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의 근심과 기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가능하며,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고 타당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한 14,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13년간 동안 ACN을 위해 훌륭하고 믿음직하게 지도신부의 소임을 맡으셨던 마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첫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틴 신부님이 가시는 길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또한 주님 포도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마틴 신부님과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축복을 청하며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

“기도와 착한 행실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와 신뢰로 원조 사업에 동참하여 주시는 후원자들은 놀라움을 줍니다.”

“우리가 세례로 얻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제36차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문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의 침해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잔인한 박해에 관한 보도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 말고 우리는 그들과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의 가치와 신념이 공격받을 때, 우리도 굳이 공격적일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한 ‘공손한 박해’를 아무런 대응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토론을 피하려고 ‘강요된

연설’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관용은 지나친 시대정신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신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일방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신념을 위한 관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협력 국가들을 보면, 이런 무관용이 차별, 심지어 참혹한 박해로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ACN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덴 ✚



전 세계 가톨릭 청년단체들이 올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도 기도로 대회 준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대회가 다시 은총의 순간이 되기를, 복음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속적인 자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ACN은 개인적으로 리스본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이 대회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교 가정들이 만든 묵주를 모든 참가자에게 선물로 나누어 줌으로써 이들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세계청년대회 참가가 힘든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대회 시기에 맞춰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먼 곳까지 이어주는 연대와 자선의 가교를 놓고, 차별받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잊히지 않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덴 ✚





험난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임마누엘 신부



성체 거동 중 꽃잎을 뿌리며 앞장서는 첫영성체 어린이들

◎ 사목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지원

하느님 나라를 향한 험난한 길

인도 북동부 시통의 본당 주임인 헨릭 임마누엘 신부는 종종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형 오토바이는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선교지역으로 가는 험난한 길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비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특히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시통의 외딴 선교마을로 가는 길이 더 위험합니다. 이 지역은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습니다. 주민은 전통적으로 무속 행위를 하는 랩차족 등의 다양한 종족들입니다.

지금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예수회 소속 벤 브루노 신부의 헌신적인 사목활동 덕분이기도 합니다. 벤 브루노 신부는 1964년에 아기 예수에게 봉헌된 이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부는 모든 이들에게 친근하게 ‘의사 선생님’으로 불렸는데, 신부가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까지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오토바이로도 사방에 흩어진 많은 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자들은 오랫동안 사제 방문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임마누엘 신부의 사목활동에 자동차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긴급 의료상황에서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부가 적절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700,000원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함께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멕시코에서도 도로 사정에 맞는 자동차를 후원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왔습니다. 멕시코 남서부 시에라 데 게레로의 미사엘 바로나 에르난데스 신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새를 타고 산과 계곡, 강을 건너는 에르난데스 신부

에르난데스 신부는 산악지대의 선교지역에서 공동체 34곳을 돌보고 있습니다. 길이라고는 자갈길뿐입니다. 우기 때는 이동이 특히 더 힘듭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을 노새를 타고 가야 합니다.

사목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가정이 폭력 문제를 겪고 있고, 학교 교육과 의료 시설의 부족, 미비한 사회기반 시설 등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처럼 범죄조직은 주민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사제들이 권리를 빼앗긴 가난한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종종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에르난데스 신부가 전합니다. “처음 2년 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신자들은 교회가 영적 치유를 위해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에르난데스 신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비도로 차량 마련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부가 담당하는 공동체 곳곳에서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성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사목활동에 36,3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



멕시코의 주보성인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기리는 행렬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표적이 된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그리스도교식 이름이나 십자가 목걸이만으로도 살해의 이유가 됩니다.

“하느님의 밀인 저는 짐승의 이빨에 짓이겨져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나시오가 쓴 글입니다. 그 후, 대략 110년 무렵에 그는 로마의 한 원형 극장에서 사자에게 내던져졌습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약 3억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종종 박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관총을 들고 마을로 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납치하고, 특히 교회 시설을 약탈하고 건물에 불을 지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자리한 아프리카 14개국에 지하디스트 테러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IS(다에시)와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도 있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의 북부와 동부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서아프리카 국가의 40%가 이미 지하디스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교식 이름이나 십자가 목걸이만으로도 살해의 이유가 됩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점점 더 지하디스트의 표적이 되어갑니다. “테러범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파다우구르마교구의 에티엔 빌립보 탄다마 신부의 설명입니다. 2015년 말부터 2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테러를 피해 피난을 갔습니다.

테러범들이 거리를 장악한 탓에 대부분의 본당 사제들은 이제 신자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마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아리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이십니다.” (시편 3)



라디오 옆에 둘러앉아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음이 외부 세상과 차단되었거나, 주민들은 이미 피난을 간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사목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라디오입니다. “신자들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이들을 위로하고, 하느님 말씀과 전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부의 설명입니다.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영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히 상황이 심각한 도시 보간데에 가톨릭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위해 110,5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육체적 양식에 대한 도움 요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 피신한 1,400명이 와가두구대교구의 리농힌 본당을 피난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중 200명은 2세 이하 영유아들입니다.

우리는 피난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리농힌 본당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식량과 의료용품을 위해 87,200,000원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폭력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도리교구의 주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제 16명과 수녀 13명을 위해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기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1인당 매일 10,000원 정도를 일 년 동안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폭도로부터 구해준 그리스도

2006년, 그리스도 성상이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수녀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흥분한 이슬람교도들이 수쿠르 지역의 가톨릭 수녀원과 학교가 있는 성모 성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폭력행위는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에 속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한 덴마크 신문에 무함마드 풍자만화가 실렸을 때, 전 이슬람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몇 주 후, 파키스탄 남부 도시 수쿠르에서도 그리스도교인이 코란 몇 장을 불태웠다는 소문이 돌자, 분노와 복수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흥분한 군중은 먼저 개신교의 구세주 교회를 부순 뒤, 가톨릭의 성모 성당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남자들은 성인상들을 부수고 의자를 넘어뜨렸고, 전례용품들도 바닥에 내던졌으며 감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불도 질렀습니다.

수녀원으로 향하던 폭도는 성당과 수녀원 사이에 놓인 거대한 그리스도 성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새하얀 석재로 만든 그리스도 왕 성상입니다. 이제 남자들의 증오는 그리스도 성상에 향했습니다. 남자들이 성상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성상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계속 성상을 공격했지만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이 도착했고, 수녀들은 구출되었습니다.

이 수녀들은 80년째 수쿠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며, 이슬람 사회에서 남성보다 지위가 훨씬 낮은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만연해있습니다. 여성들조차 어

릴 때부터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지요. 대부분 학교에 다닌 적 없던 여성들은 가정부로 고용되거나, 대지주의 밭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뿐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수 종교에 속한 여성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때로 납치와 강제 혼인을 당하고, 젊은 여성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제 수녀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으면서 파키스탄의 많은 지역이 황폐해졌습니다. 수쿠르에도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로지 야콥 수녀가 전합니다. "비와 홍수로 인해 우리 수녀원에 심각한 피해가 났습니다. 지붕이 새고, 정전사태가 일어난 데다 문과 창문이 파손되었어요. 많은 곳을 수리해야 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 수녀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26,200,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벽에 적힌 글 "주님은 우리 목자.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신다."



공격을 받아 불탄 교회



수녀들의 목숨을 구해준 그리스도 성상 앞에 선 로지 수녀와 학생들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다

가르멜 수도회 소속으로 일흔한 살의 노베르토 포찌 신부는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 기념 축일 전날 밤, 외딴 사바나 마을을 자동차로 지나다가 바로 아래에서 지리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3년째 사목활동 중인 이탈리아 사제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고르 조핀(34세) 수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엄청났어요. 폭발로 차가 붕 떠올랐고 앞면이 완전히 부서졌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고르 수사는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노베르토 신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상을 입고 빠져나온 아프리카 작업자 두 명이 출혈이 심한 노베르토 신부를 자동차 잔해에서 구해냈습니다.

사고 장소는 도시 보름에서 22km 떨어진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앞에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폭발음을 듣고 되돌아왔어요. 우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좌석에 앉은 남자 사이에 노베르토 신부님을 얹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했습니다." 이고르 수사의 설명입니다. 보름 병원에서 포찌 신부는 상처에 박힌 지뢰 파편을 제거하면서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신부는 구조헬기를 타고 수도인 방기로 옮겨졌습니다. 이때부터 죽음과의 사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이탈리아에 가서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완전히 망가진 왼쪽 발은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베르토 신부는 다시 '유쾌한' 기분을 되찾았다고 동료들이 기뻐합니다.

노베르토 신부가 죽음을 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

었습니다. 친형제인 클라우디오 포찌가 회상합니다. "한번은 노베르토가 반란군 점거 지역을 지나다가 총격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무사히 빠져나가긴 했는데, 집에 도착하고 보니 총알이 머리 받침대에 박혀 있었지요. 하마터면 머리에 총알을 맞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클라우디오 포찌는 감격에 젖어 덧붙입니다. "한 친구가 노베르토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단지 운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무수한 사람들의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는 데다, 노베르토가 몹시 공경하는 성모님은 서둘러 그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고통에서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베르토 포찌 신부처럼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날마다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CN은 이들 수만 명에게 미사예물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안데스산맥의 산악지대에 사는 많은 어린이가 ‘하느님과 만남을 희망’하고 있다. 페루 ACN 프로젝트 담당자 루이스 빌도소가 전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

페루의 시쿠아니교구는 3,500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산간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혹독하고, 어린이들은 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몹시 가난합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뜻하는 만큼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쿠아니교구의 주교가 오스트리아 주교회의에서 만들었고 ACN의 「YOUCAT(유캣)」 재단이 배포하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인 어린이용 「YOUCAT(유캣)」 과 청소년용 「YOUCAT(유캣)」 을 각각 1,250부씩, 그리고 「YOUCAT(유캣)」 청소년 성경을 2,500부 청해왔습니다. 50곳의 선교 단체에 보내질 이 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이룩해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그리스도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그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빌도소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21,500,000원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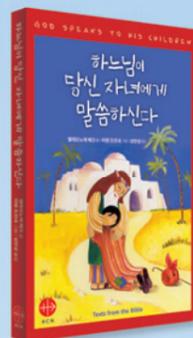
하느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ACN은 45년째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3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5,160만 부 이상 배포됩니다. 이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읽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 조그마한 빨간 성경책이 아주 인기입니다. 헨리 로자노 신부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타갈로그어로 된 어린이 성경 5,000부를 요청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성경책은 시급하게 필요하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헨리 신부가 담당하는 나가 지역의 많은 주택이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 몇 번이나 피해를 보거나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방문한 신부는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간 식품 꾸러미에 감사해하면서도 성경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지요.”

어린이 성경 5,000부를 위해 4,60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가정에 하느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마르 10,15)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미 어린이 성경이 있지만, 나가 지역의 다른 어린이들은 여전히 성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절망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레바논에는 분노, 허탈감, 절망이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이 나라를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청년이 오늘날 하느님을 믿으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하느님이 ‘희망이자 기쁨, 의로움이며 우리가 가진 전 재산’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위기 전에도 레바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했던 아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수성심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는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는 걸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녀들이 만든 ‘성 프란치스코의 사명’을 통해 15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그룹으로 함께 모이고,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청년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 모임도 있고, 일주일간의 도보 성지순례 같은 대규모 활동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워크숍도 있습니다.



“당신 빛으로 저희를 빛을 봅니다.” (시편 36,10) : 새벽 미사

수녀들은 청년 1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00,000원을 청해왔습니다.

레바논 청년들이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팔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신다면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

“하느님의 꿈은...”

“가정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꿈’이며, 하느님 교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꿈’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분별력을 갖춘 지도가 필요합니다.



“단단한 기반 위에 행복을 세웁니다.”

아프리카는 가족 유대가 끈끈한 대륙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에서조차 가정의 붕괴가 점차 심각해지고, 가난, 미디어의 영향, 기회의 상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찌감치 성적 문란함, 알코올, 마약, 범죄로 도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10대 임신과 에이즈가 만연하면서 많은 비극을 초래하는데, 특히 이런 환경에서 원치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830만 명의 40%가 15세 이하인 서아프리카의 토고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네호교구 주교는 평신도 교육을 통해 본당 청년들에게 신의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자신은 물론 미래 배우자의 자존감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로써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4,30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더 가난한 이들을 돕습니다

전쟁으로 이미 황폐해진 시리아에 추가로 재앙을 초래한 심각한 지진 소식을 접했을 때, 캄보디아의 가톨릭 신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알레포에서 집을 잃은 그리스도교 가정들을 돕기 위해 25,000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가톨릭 신자들 자신도 대부분 가난하며, 캄보디아의 전체 1,670만 명 인구 중에서 가톨릭 신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프놈펜의 교황 대리인 올리비에 쉬미트해우술러 주교가 보내온 글입니다. “캄보디아의 이 작은 교회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쁜 일입니다. 사실 나 자신도 이런 모금 물결에 놀랄 정도였죠.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기부활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캄보디아의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하느님의 보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감사’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티는 가난, 부패, 경제 실책, 자연재해, 심각해지는 폭력에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티 제레미 교구의 돈 보스코 살레시오 수녀들에게서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는 이곳 수녀들에게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천후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플로라 판탄 수녀가 수녀원을 대표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라는 말로는 우리 감정을 다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조금은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에게 교통수단이 없어서 큰 문젯거리였는데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해결되었으니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의 선물에 저희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클 것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은 하느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 ACN 후원자의 날

ACN은 2021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후원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성심의 자비로운 사랑을 꼭 닮은 후원자들의 너그름은 ACN이 이 세상에 증거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창에 찢린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야말로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체성사 거행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곧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난마저도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몸을 저희에게 빵으로 내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2023년 6월 16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전 세계 수천 명의 주교와 사제들이, 세계 곳곳의 여성 수도자들과 신학생들, 수련자들, 교리교사들, 본당과 가정 그리고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특별히 ACN 후원자 여러분을 위한 지향으로

거룩한 희생제사인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바로 여러분께서 덜어주셨으며, 모두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친애하는 ACN 가족 여러분, 교회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모든 은인들의 마음이 담긴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1,000번 이상 나옵니다. 마음은 감각과 인식, 경험의 배경, 감정적인 세계, 의지와 지성, 직관과 영감 등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지입니다.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은 시간과 영원함 속에서 전 인격을 형성하고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수 성심께 대한 믿음과 묵상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특히 성녀 제르트루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 파우스티나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ACN은 예수 성심 대축일(6월 16일)을 ‘후원자들의 날’로 지정하여 후원자들을 예수 성심께 맡겨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기쁨 안에서 감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자선과 개인적인 후원 때문입니다. 단순히 긴급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에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는 예수 성심의 사랑에 깊이 체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작품을 통해

우리 의도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성녀는 우리를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인도하면서 직접 체험하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가난한 자에 대한 너그름으로 가득 채웁시다!” 제가 보기에, 때때로 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큼이나 큰 은혜를 느끼고 치유도 받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프로젝트 파트너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성심의 사랑을 표현하는 ACN을 통해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축일을 맞아, 우리는 예수 성심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가 남긴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예수 성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구세주께서는 구원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성심에 스며들 때 어떻게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놀라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정의 평화, 위로, 축복 등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우리를 심판할 주님의 성심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마음을 당신 마음과 같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빕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id to the Church in Need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1

이사회 개최

2023년 제11회 이사회 및 제7차 정기 총회



2023년 5월 31일(수),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한국지부는 제11회 이사회 및 제7차 정기 총회를 서울대교구청 신관 3층에서 개최했습니다.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 및 사회사목,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를 비롯하여 총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2022년 모금 및 활동을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ACN의 사명대로 더 열심히 알리고,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

2023년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6월 13일
화요일 오후 2~4시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한국지부는 절두산 순교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와 공동 주관으로 '2023년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를 진행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첫 발현일인 5월 13일부터 마지막 발현일인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를 봉헌합니다.

날 짜
장 소
미사주례
진 행

6월 13일(화)	7월 13일(목)	8월 13일(일)	9월 13일(수)	10월 13일(금)
절두산 순교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박기석 신부	구요비 주교	정순택 대주교	두봉 주교	염수정 추기경

① 초 봉헌 ②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③ 미사
오후 2시~4시 (초 봉헌은 13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3

TV 매일미사

6월 16일
금요일 06시, 09시, 12시, 18시



ACN 한국지부는 2023년 6월 16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미사 때 ACN 후원자의 날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ACN은 2021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후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시청을 통해 미사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 2023년도 제4호는 2022년 연간 보고서와 함께 7월 말에 발행할 예정입니다.